

2026년 중부대학교 연구과제

중부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평가보고서

□ 연구책임자 : 백**(중부대학교 교수)

□ 공동연구원 : 신**(중부대학교 교수)

김**(중부대학교 교수)

김**(**고등학교 교사)

2026. 03. 25.



중 부 대 학 교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목 차

I. 선행학습 영향평가 개요

1. 대학별고사 실시 현황
2. 전형 및 모집계열별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결과

II. 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 절차 및 방법

1. 선행학습 영향평가 관련 대학의 자체 규정
2.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 조직 구성
3. 대학별고사 및 선행학습 영향평가 일정·절차

III. 대학별고사 준비 및 시행 과정 분석

1. 출제 전
2. 출제 중
3. 출제 후
4. 문항 분석 및 평가(개선 사항)

IV. 선행학습 영향평가 설문 결과 분석

V. 차년도 입학전형 반영 및 개선 계획

1. 요약 : 선행학습 유발 영향 평가 결과
2. 2027학년도 입학전형 반영 계획 및 개선 과제 제언

VI. 부록

1. 2026학년도 중부대학교 수시모집 입학전형 요약
2. 2026학년도 중부대학교 정시모집 입학전형 요약
3. 문항카드 : 해당사항 없음
4. ‘중부대학교 선행교육(선행학습) 및 사교육 영향 조사’ 설문지

I. 선행학습 영향평가 개요

1. 대학별고사 실시 현황

2026학년도 중부대학교 입학전형 중 대학별고사 실시현황은 아래 <표 I -1>과 같다.

<표 I -1> 중부대학교 2026학년도 대학별고사 영향평가 실시 현황

구분	입학전형	모집 계열 (단위)	대학별 고사 실시 여부 (○,X)	대학별고사 유형					교과 교육과정 관련 여부 (○,X)
				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 · 구술고사	실기 · 실험고사	교직적성 · 인성검사	기타	
수시	일반전형	인문사회 계열	○		○				X
수시	일반전형	자연과학 계열	○		○				X
수시	일반전형	공학계열	○		○				X
수시	일반전형	예체능 계열	○		○				X
수시	실적우수자전형	예체능 계열	X						-
수시	지역인재전형	전체	X						-
수시	국가보훈 대상자전형	전체	X						-
수시	기초/차상위/ 한부모가정자녀 전형	전체	X						-
수시	실기우수자전형	인문사회 계열	○			○			X
수시	실기우수자전형	예체능 계열	○			○			X
정시	일반전형	전체	X						-
정시	일반전형	사범계	○		○				X
정시	실기우수자전형	인문사회 계열	○			○			X
정시	실기우수자전형	예체능 계열	○			○			X
정시	농어촌학생전형	전체	X						-
정시	특성화고교 졸업자전형	전체	X						-
정시	기초/차상위/ 한부모가정자녀 전형	전체	X						-

*대학별고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 교육과정 관련 여부를 ‘-’로 표기하였음.

2. 전형 및 모집계열별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결과

가. 선행학습 영향평가 관련 이행사항 점검 결과

2026학년도 중부대학교 입학전형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 관련 이행사항 점검 결과는 아래 <표 I -2>와 같다.

<표 I -2> 선행학습 영향평가 관련 이행사항 점검 결과

구 분		점검 사항	점검 결과
법령 이행	교칙	선행학습 영향평가 및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 관련 교칙이 있는가?	○
	위원회 구성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에 현직 고등학교 교원이 참여하였는가?	○
	결과 공개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는가? (대학홈페이지 > 입학정보 메뉴 > 입시알리미> 공지사항)	○
영향평가 시행 범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모든 유형의 입학전형에 대하여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하였는가?	○
자체평가		대학별고사 출제·검토 과정 참여자의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자체평가 결과를 분석하였는가?	○
결과 분석	분석 범위	교과 지식에 관련된 모든 문항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충실히 하였는가?	해당 사항 전혀 없음
	작성의 충실성	교과 교육과정 관련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를 문항카드 등 양식에 충실하게 작성하였는가?	
	현황표	문항별 적용 교과 현황표를 충실하게 작성하였는가?	

* 중부대학교는 논술 등 필답고사, 교과 관련 면접·구술고사, 선다형고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과 지식에 관련된 모든 문항, 문항카드, 문항별 적용 교과 현황표 결과 분석과 관련하여 해당 사항이 전혀 없음.

나. 전형 및 모집계열별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결과

2026학년도 중부대학교 전형 및 모집계열별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결과는 아래 <표 I -3>와 같다.

<표 I -3> 전형 및 모집계열별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결과

구분	입학 전형	모집 계열 (단위)	대학별 고사 실시 여부 (○,X)	대학별고사 유형					교과 교육 과정 관련 여부 (○,X)	영향평가 실시결과
				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 구술고사	실기· 실험고사	교직적성· 인성검사	기 타		
수시	일반전형	인문사회 계열	○		○				X	준수
수시	일반전형	자연과학 계열	○		○				X	준수
수시	일반전형	공학계열	○		○				X	준수
수시	일반전형	예체능 계열	○		○				X	준수
수시	실적우수자 전형	예체능 계열	X						-	-
수시	지역인재 전형	전체	X						-	-
수시	국가보훈 대상자전형	전체	X						-	-
수시	기초/차상위 /한부모가정 자녀전형	전체	X						-	-
수시	실기우수자 전형	인문사회 계열	○			○			X	준수
수시	실기우수자 전형	예체능 계열	○			○			X	준수
정시	일반전형	전체	X						-	-
정시	일반전형	사범계	○		○				X	준수
정시	실기우수자 전형	인문사회 계열	○			○			X	준수
정시	실기우수자 전형	예체능 계열	○			○			X	준수
정시	농어촌학생 전형	전체	X						-	-
정시	특성화고교 졸업자전형	전체	X						-	-
정시	기초/차상위 /한부모가정 자녀전형	전체	X						-	-

*대학별고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 교육과정 관련 여부와 영향평가 실시 결과를 ‘-’로 표기하였음.

다. 대학별고사에 사용된 문항별 적용 교과 현황

2026학년도 중부대학교 입학전형은 논술 등 필답고사, 교과 관련 면접·구술고사, 선다형고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대학별고사에 사용된 문항별 적용 교과 현황은 전혀 해당사항이 없다.

<표 I -4> 대학별고사에 사용된 문항별 적용 교과 현황

시험유형	입학 전형	모집 계열 (단위)	입학 모집요강에 제시한 자격 기준 과목명	문항 번호	하위 문항 번호	계열 및 교과								
						인문·사회			수학	과학				영어
						국어	사회	도덕		물리	화학	생명 과학	지구 과학	
논술 등 필답고사	○○ 전형	○○ 계열	국어 I, 일반사회, 생활과 윤리	1	1	해당 사항 전혀 없음								
					2									
					3									
		■■ 계열	수학 I, 미적분 I	1	—									
				2	—									
	★★ 전형	XX 계열	미적분Ⅱ	1	—									
면접· 구술고사	▲■ 전형	○● 계열	물리 I, 물리Ⅱ	1	—									
				2	—									
선다형 고사	▲▲ 전형	○X 계열	화학 I	1~50										

II.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절차 및 방법

1. 선행학습 영향평가 관련 대학의 자체 규정

중부대학교 입학전형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이 규정은 2015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선행학습 영향평가 규정

제1조(목적) 공교육정상화법 제10조 및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제5조와 관련, 고교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중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입학전형에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요소를 배제하고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전형을 운영함으로써, 고교 교육 정상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① ‘선행교육’이란 초·중·고등학교에서 국가 수준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시도 수준의 교육과정에 따라 편성·운영되는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 또는 제공하는 교육 일반을 말한다.

② ‘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국가교육과정, 시·도 교육과정 및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는 범위와 수준의 내용을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① 본교 입학전형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요소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입학홍보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총장이 추천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현직 고교 교사, 교직원 등) 4인 내외를 포함하여 총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0.5.8.)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입학홍보처장으로 하고, 간사는 입학홍보처 직원으로 한다.(개정 2020.5.8.)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한다.

제4조(선행학습 영향평가) ① 본교가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학전형에서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입학처장은 제1항의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 영향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에 따른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입학홍보처장은 제2항의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입학홍보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하며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하도록 한다.
(개정 2020.5.8.)

제5조(방법 및 절차)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방법, 절차 등은 다음과 같다.

1. 선행학습 영향평가는 해당 전형이 종료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시행한다.
2. 교과 지식과 관련 없는 인성면접이나 학생부·자기소개서 기재 내용을 확인하는 면접 형태의 경우에는 평가를 시행하지 않는다.
3. 교과 지식을 직접 묻는 면접은 아니라도 교과 지식과 관련된 사항을 예시문으로 활용하거나, 이에 대한 문제 해결 과정을 측정하는 면접은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선행학습 영향평가는 설문조사 또는 문항 평가, 출제의도, 채점기준, 모범답안 분석 등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에 따라 진행한다.
5. 영향평가 결과 본교의 입학전형이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 출제되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다음 연도 대입전형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6조(적용의 배제) 입학전형의 내용이 예체능 실기고사 또는 국가교육과정과 시·도 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상 체육·예술 교과(군), 기술·가정 교과(군), 실과·제2외국어·한문·교양 교과(군), 전문 교과에 해당하는 경우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7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2.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 조직 구성

2026학년도 중부대학교 입학전형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위해 구성된 선행학습 영향평가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당연직인 입학홍보처장을 비롯한 교수와 외부의 교육기관 담당자를 포함하고 있다.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증빙하기 위하여 외부인사인 현직 고등학교 교사를 포함한 구성 내용을 <표Ⅱ-1>과 같이 제시하였다. 외부인사인 현직 교사는 **고등학교 김** 교사이다.

〈표Ⅱ-1〉 선행학습 영향평가위원회(위촉기간 : 2025. 03. 01 ~ 2026. 02. 28)

구 분	소 속	성 명	비 고
위원장	입학홍보처	송**	입학홍보처장
위 원	특수체육교육과	백**	교육상담심리학 전공
위 원	학생성장교양학부	신**	교육철학 전공
위 원	학생성장교양학부	김**	평생교육학 전공
위 원	**고등학교	김**	교사
간 사	입학과	윤**	입학계장

※ 관련근거: 내부결재 입학과-302(2025. 3. 21.) “2026학년도 신·편입학 관련 제 위원회
위원 위촉”

3. 대학별고사 및 선행학습 영향평가 일정·절차

〈표Ⅱ-2〉 대학별고사 및 선행학습 영향평가 일정 및 절차

진행단계	일정	주요내용 및 절차	비고
1. 평가 계획 수립	2025.03.~04.	- 선행학습 영향평가 기본 계획 수립 -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 구성 (내/외부 위원 위촉), 관련 규정 정비	관련 규정 정비
2. 문항 출제 및 검토	2025.07.~08.	- 출제/검토 매뉴얼 배포 - 전형별 면접 평가 문항 출제 -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 출제 여부 검토(1차, 2차). - 면접구술출제위원회,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	
3. 대학별 고사 실시	2025.09~10. 2026.01.	2026학년도 수시모집 대학별고사(면접 평가) 실시 2026학년도 정시모집 대학별고사(면접 평가) 실시	전형일정 에 따름
4. 결과 분석 및 심의	2026. 01~03.	-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 회의 개최 (총 3회) 1차(1/15) 면접 문항 교육과정 준수 여부 사후 검증 2차(2/10) 설문 문항 공유 및 분석 3차(3/16) 설문조사 결과 통계 처리 및 분석 개선 과제 도출 및 차년도 반영 계획 논의 결과보고서 검토 - 선행학습 유발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대상 : 당해 연도 면접 최종 합격자	
5. 보고서 완료 및 공시	2026.03.	2026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최종 확정 - 대학 홈페이지 및 입학처 홈페이지 공시, 법정 기한(3월 말) 준수	

Ⅲ. 대학별고사 준비 및 시행 과정 분석

중부대학교는 2026학년도 입학전형에서도 필답고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면접 문항도 전공진로에 대한 관심과 열정에 주안점을 두고 출제하였다.

중부대학교 대학별고사 준비 및 시행과정에 참여한 인원 및 고등학교 교원 참여 현황은 아래와 같다. 2026학년도 중부대학교 입학전형은 논술 등 필답고사, 교과 관련 면접·구술고사, 선다형고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기에 출제·검토위원회 일반고 교사위원을 위촉하지 않았다(다만, 선행학습 영향평가위원회에는 일반고 교사위원이 위촉되어 있다).

<표 Ⅲ-1> 대학별고사 준비 및 시행과정에 참여한 인원 및 고등학교 교원 참여 현황

전형 및 모집계열별 출제·검토위원		전체 위원	교수 위원	교사 위원 (일반고 교사위원)
전형 및 모집계열	출제위원	11명	11명	0명 (0명)
	검토위원	11명	11명	0명 (0명)

여기에서는 중부대학교 대학별고사 준비 및 시행과정에서 이루어져 온 본교의 노력을 출제 전, 출제 과정, 출제 후 및 문항 분석 및 평가(개선 사항) 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1. 출제 전

면접 문항 출제 시 절차 준수 노력	준비 방법
- 교육과정 및 교과서 등 각종 출제 준비 사항: 교과 관련 대학별 고사가 아니기에 해당사항 없음. - 학부별 출제위원 선정과 전체 검토위원 선정함. (관련근거: 내부결재 입학과-302(2025.3.21.) 2026학년도 신·편입학 관련 제 위원회 위원 위촉(면접구술출제위원 포함) - 출제 및 검토위원 회의 실시: 출제자들이 출제 전에 사전 교육을 통해 전공 분야에 대한 진로 열정, 인성과 가치관, 사고력을 중심으로 출제기준 재확인함. (관련근거: 면접구술출제위원회 1차 회의: 2025.7.28.(월) 16시 면접구술출제위원회 2회 회의: 2025.8.20.(수) 16시) - 면접 평가준거별 교과 지식 내용이 아닌 고등학교 생활 경험과 사고력, 학습 의지 위주의 면접 주제 선정함. - 검토위원들이 면접 평가준거가 타당하게 설정되었는지 검토함.	- 모든 면접문항이 고교 교육과정과 무관하게 출제하도록 출제방향 수립하고 이를 전체 출제위원이 공유 -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 구성

2. 출제 중

면접 문항 출제 절차와 방법	검토위원 검토 방법
- 공개질문은 면접구술출제위원이 학부별로 공통 사항을 고려하여 복수의 면접 면접문항을 출제 - 비공개질문은 전공별 특성을 고려하여 전공소속교원이 면접문항을 출제 - 면접 문항은 전공분야에 대한 진로열정, 인성과 가치관, 사고력, 학업성실성 및 리더십을 확인하는 인성면접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구성함. - 면접구술출제위원들이 각각의 면접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과 무관하게 출제하도록 한 출제방향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	- 출제 중인 면접 문항이 교과내용보다 경험과 사고력 위주 출제 내용인지 확인 - 교과지식이 필요한 지필고사 성격의 면접문항 모두 배제 - 검토위원들의 검토를 거쳐 학부별 면접문항 1차 선정

3. 출제 후

면접 문항 출제위원 자체 평가	검토위원 자체 평가
- 출제위원은 면접 문항 출제 후 검토위원들이 면접 평가준거를 고려하여 면접 문항이 타당하고 적합하게 출제되었는지 자체 평가 진행 - 공개질문에 대해 출제위원은 출제한 면접 문항에 대해 학부별로 교수진(주로 학과장)들의 논의를 거쳐 선정 - 비공개질문의 경우 출제위원들이 교육과정과 대학별고사와 관련 있는 문항을 검토하여 철저히 배제함.	- 수험생에게 부담되는 전공지식등의 어려운 문항 배제검토 - 차별적이거나 편향된 문항 배제검토 - 반복되거나 중복된 문항 배제검토 - 법적 또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문항 배제검토 - 검토위원들이 교과지식이 필요한 지필고사 성격의 면접문항이 확실하게 배제되었는지 자체평가를 통하여 재확인을 거쳐 면접문항 최종 선정

- 출제위원과 검토위원들의 자체평가 결과 모든 면접문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교과 지식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확인되었기에 학부별 면접문항 확정
-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에서 선행학습 영향평가 설문 문항 작성 및 설문 결과 분석 확인
 - 모든 전형유형과 전형요소가 선행학습과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모든 전형 시행 후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과 홈페이지 공개

4. 문항 분석 및 평가 (개선 사항)

가. 문항 분석 및 평가 결과

문항 분석 결과 중부대학교 대학별고사에 적용된 모든 면접 문항은 교과지식이 필요한 지필고사 성격의 면접문항은 철저하게 배제되었고, 고교 생활 경험이나 사고력, 대학 입학 후의 학습의지 확인을 포함하여 학생이 지원한 전공진로에 대한 관심과 열정에 주안점을 두고 출제되었음을 확인되었다.

나. 개선 사항

중부대학교는 2026학년도 면접문항은 학부별로 전공영역별 사회발전 동향과 분야별 시의성을 고려하여 문항 내용을 개선하였다. 전공영역별 사회발전 동향과 분야별 시의성을 고려하여 수정 개선된 일부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전체 면접 문항 중 일부는 비공개 문항이기에 일부 문항만 제시함)

1) 경찰경호학부 면접문항 중 일부 사례

-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경찰 서비스는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지 의견을 제시하시오.
-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경찰 활동의 장점과 우려되는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나요?

2) 항공관광학부 면접문항 중 일부 사례

- 다양한 국적의 승객을 맞이하는 승무원에게 필요한 태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 항공운항서비스학전공에 입학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3) 보건복지학부 면접문항 중 일부 사례

- 최근 AI(인공지능) 기술발전으로 의료환경의 변화와 함께 간호업무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AI도입의 장점과 한계를 1개씩만 말해보시오.

4) 건축 소프트웨어 전기전자자동차 공학부 면접문항 중 일부 사례

- 본인이 다녔던 고등학교의 건물 및 시설 중에서 불편했던 부분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 가장 좋아하는 건물이나 시설물은 무엇이고 왜 좋아하는가?

5) 사범학부 면접문항 중 일부 사례

-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통합학급에서 효과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어떤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 최근 유아교육과 관련된 사회 이슈 중 가장 관심 있는 주제를 하나 선정하여 본인의 의견과 해결 방안을 말해보세요

중부대학교는 2026학년도 입학전형에서 개선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시전형에서 학생부 교과성적 반영과목 수를 15개 과목에서 10개 과목으로 축소와 동시에 고교 교육과정 내 진로선택 과목 성적도 전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준비 부담을 경감하였다.

둘째, 기존 정시전형에서 수능시험 국어, 영어, 수학 영역별 반영비율을 상위 2개 영역 선택하고, 탐구영역(사회/과학/직업)와 수능 필수교과목인 한국사 중 상위 1개를 선택하도록 계속유지함에 따라 별도의 사교육 부담을 경감하였다.

Ⅳ. 선행학습 영향평가 설문 결과 분석

2026학년도에 중부대학교 입학전형에서는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보다 객관적으로 조사 분석하기 위하여 중부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생 중 설문 응답자인 946명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중부대학교 입학전형의 사교육과 선행학습 유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항목별로 분석하였다. 먼저 대입전형요소별로 사교육 유발 영향을 분석하였고, 중부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문항은 총 10개로 구성되었다. 설문 문항 결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타 대학과 비교하여 본교 대입전형 준비를 위해 선행교육을 더 많이 하였습니다습니까?

타 대학과 비교하여 본교 대입전형 준비를 위해 선행교육을 더 많이 하였습니다습니까?		
[1]	매우 그렇다	82명(8.67 %)
[2]	그렇다	124명(13.11 %)
[3]	보통	387명(40.91 %)
[4]	그렇지 않다	212명(22.41 %)
[5]	매우 그렇지 않다	141명(14.90 %)

‘타 대학과 비교하여 본교 대입전형 준비를 위해 선행교육을 더 많이 하였습니다습니까?’라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 중 21.78%만이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나머지 78.22%은 ‘보통’ 또는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2. 타 대학과 비교하여 본교 대입전형이 선행교육 확대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타 대학과 비교하여 본교 대입전형이 선행교육 확대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79명(8.35 %)
[2]	그렇다	152명(16.07 %)
[3]	보통	467명(49.37 %)
[4]	그렇지 않다	174명(18.39 %)
[5]	매우 그렇지 않다	74명(7.82 %)

‘타 대학과 비교하여 본교 대입전형이 선행교육 확대에 더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 중 24.42%만이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나머지 75.58%는 ‘보통’ 또는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3. 타 대학과 비교하여 본교 대입전형 준비를 위해 사교육을 더 많이 하였습니다습니까?

타 대학과 비교하여 본교 대입전형 준비를 위해 사교육을 더 많이 하였습니다습니까?		
[1]	매우 그렇다	63명(6.66 %)
[2]	그렇다	125명(13.21 %)
[3]	보통	318명(33.62 %)
[4]	그렇지 않다	263명(27.80 %)
[5]	매우 그렇지 않다	177명(18.71 %)

‘타 대학과 비교하여 본교 대입전형 준비를 위해 사교육을 더 많이 하였습니다습니까?’ 라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 중 19.87%만이 ‘매우 그렇다’ 와 ‘그렇다’ 고 응답하였다. 나머지 80.13%는 ‘보통’ 또는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고 답변하였다.

4. 타 대학과 비교하여 본교 대입전형 준비를 위해 사교육이 더 많이 필요합니까?

타 대학과 비교하여 본교 대입전형 준비를 위해 사교육이 더 많이 필요합니까?		
[1]	매우 그렇다	40명(4.23 %)
[2]	그렇다	100명(10.57 %)
[3]	보통	377명(39.85 %)
[4]	그렇지 않다	294명(31.08 %)
[5]	매우 그렇지 않다	135명(14.27 %)

‘타 대학과 비교하여 본교 대입전형 준비를 위해 사교육이 더 많이 필요합니까?’ 라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 중 14.80%만이 ‘매우 그렇다’ 와 ‘그렇다’ 고 응답하였다. 나머지 85.20%는 ‘보통’ 또는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고 답변하였다.

5. 본교 전형유형 중에서 선행교육 유발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전형은 어떤 전형입니까?

본교 전형유형 중에서 선행교육 유발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전형은 어떤 전형입니까?		
[1]	학생부교과전형	389명(41.12 %)
[2]	실기위주전형	233명(24.63 %)
[3]	수능위주전형	194명(20.51 %)
[4]	없다	130명(13.74 %)

‘본교 전형유형 중에서 선행교육 유발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전형은 어떤 전형입니까?’ 라는 문항에 대해 학생부교과전형(41.12%) > 실기위주전형(24.63%) > 수능위주전형(20.51%) 순으로 답변하였다. 없다는 응답도 13.74%였다. 본교의 입학전형 유형 중 선행교육 유발효과가 가장 낮은 전형은 수능위주전형이었다. 반면에, 본교의 입학전형 유형 중 선행교육 유발효과가 가장 높은 전형은 학생부교과전형이었다.

6. 본교 전형유형 중에서 사교육 유발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전형은 어떤 전형입니까?

본교 전형유형 중에서 사교육 유발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전형은 어떤 전형입니까?		
[1]	학생부교과전형	301명(31.82 %)
[2]	실기위주전형	293명(30.97 %)
[3]	수능위주전형	228명(24.10 %)
[4]	없다	124명(13.11 %)

‘본교 전형유형 중에서 사교육 유발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전형은 어떤 전형입니까?’ 라는 문항에 대해 문항에 대해 학생부교과전형(31.82%) > 실기위주전형(30.97%) > 수능위주전형(24.10%) 순으로 답변하였다. 없다는 응답도 13.11%였다. 본교의 입학전형 유형 중 사교육 유발효과가 가장 낮은 전형은 수능위주전형이었다. 반면에, 본교의 입학전형 유형 중 사교육 유발효과가 가장 높은 전형은 학생부교과전형이었다.

7. 본교 전형요소 중에서 선행교육 유발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전형요소는 어떤 것입니까?

본교 전형요소 중에서 선행교육 유발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전형요소는 어떤 것입니까?		
[1]	학생부 교과	358명(37.84 %)
[2]	실기	218명(23.04 %)
[3]	면접	135명(14.27 %)

[4]	수능	235명(24.84 %)
-----	----	---------------

‘본교 전형요소 중에서 선행교육 유발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전형요소는 어떤 것입니까?’ 라는 문항에 대해 학생부교과(37.84%) > 수능(24.84%) > 실기(23.04%) > 면접(14.27%) 순으로 답변하였다. 본교 전형요소 중에서 선행교육 유발 영향이 가장 큰 전형요소는 학생부교과였다.

8. 본교 전형요소 중에서 사교육 유발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전형요소는 어떤 전형요소입니까?

본교 전형요소 중에서 사교육 유발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전형요소는 어떤 전형요소입니까?		
[1]	학생부 교과	309명(32.66 %)
[2]	실기	281명(29.70 %)
[3]	면접	111명(11.73 %)
[4]	수능	245명(25.90 %)

‘본교 전형요소 중에서 사교육 유발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전형요소는 어떤 것입니까?’ 라는 문항에 대해 학생부교과(32.66%) > 실기(29.70%) > 수능(25.90%) > 면접(11.73%) 순으로 답변하였다. 본교 전형요소 중에서 사교육 유발 영향이 가장 큰 전형요소는 학생부교과, 실기, 수능, 면접 순이었다.

9. 본교 전형에서의 면접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문항이었습니까?

본교 전형에서의 면접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문항이었습니까?		
[1]	고교 교육과정 내의 질문이라 충분히 답변할 수 있었다.	546명(57.72 %)
[2]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이라 답변할 수 없었다.	27명(2.85 %)
[3]	잘 모르겠다.	373명(39.43 %)

‘본교 전형에서의 면접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문항이었습니까?’ 라는 문항에 대해 ‘고교 교육과정 내의 질문이라 충분히 답변할 수 있었다’ 는 답변이 과반수 비율인 57.72%에 달하였다. 반면에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이라 답변할 수 없었다’ 는 답변은 2.85%에 불과하였다. 이에 근거할 때, 본교 전형에서의 면접문항은 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문항이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10. 본교 전형에서의 면접문항이 다른 대학과 비교하여 사교육을 더 많이 유발하고 있습니까?

본교 전형에서의 면접문항이 다른 대학과 비교하여 사교육을 더 많이 유발하고 있습니까?		
[1]	매우 그렇다	31명(3.28 %)
[2]	그렇다	56명(5.92 %)
[3]	보통	483명(51.06 %)
[4]	그렇지 않다	233명(24.63 %)
[5]	매우 그렇지 않다	143명(15.12 %)

‘본교 전형에서의 면접문항이 다른 대학과 비교하여 사교육을 더 많이 유발하고 있습니까?’라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 중 9.2%만이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나머지 90.8%는 ‘보통’ 또는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근거할 때, 본교 전형에서의 면접문항이 다른 대학과 비교하여 사교육을 더 많이 유발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할 수 있다.

V. 요약 및 2026학년도 입학전형 반영 개선 과제

1. 요약 : 선행학습 유발 영향 평가 결과

본 연구의 핵심 과제인 2026학년도 중부대학교 입학전형의 면접 문항 및 선행학습 영향 평가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본교의 전형 운영으로 인한 선행학습 및 사교육 유발 영향은 없다. 특히 2023학년도부터 대입전형 단순화의 일환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을 전면 폐지하여, 전형 준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교육 유발 요인을 구조적으로 차단하였다. 따라서 본교의 특징적인 전형 방식이 수험생의 추가적인 사교육이나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특히, 중부대학교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유발 영향을 분석하면, 수시전형에서는 학생부 교과성적 반영과목 수를 15개 과목에서 10개 과목으로 축소하였다. 또한 정시전형에서 수능시험 국어, 영어, 수학 영역별 반영비율을 상위 2개 영역 선택하고, 2024학년도에 반영했던 탐구영역 3과목(사탐, 과탐, 직탐) 중 1개 선택에서 한국사(수능 필수과목) 과목을 확대하여 4과목(사탐, 과탐, 직탐, 한국사)에서 1개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부담과 사교육비 부담을 일부 경감하였다고 평가된다. 특히 고교 교육과정 내 진로선택과목을 전형 평가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학교 교육만으로도 입학전형 대비가 가능하도록 유도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험생의 사교육 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하였다.

본 평가에서 '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국가 및 시·도 교육과정,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2026학년도 중부대학교 입학전형은 현행 학생부 위주 대입전형(학생부교과전형 등) 전반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수준의 사교육 영향을 상회하지 않는다. 즉, 중부대학교의 특화된 전형 운영에 기인하여 추가적인 선행학습이나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인은 없다고 평가된다.

본 자체평가 보고서에서 '선행학습' 유발 영향은 없으며 오히려 2025학년도보다 감소하였다고 평가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입 전형의 단순화를 통한 수험생 부담 완화이다.

본교는 2023학년도부터 전형 체계를 대폭 단순화하였으며, 2026학년도 전형에서도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복잡한 준비 과정으로 인해 사교육 유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을 폐지하여, 대입전형으로 인한 선행학습 및 사교육 유발 요인을 구조적으로 차단하였다.

둘째, 대학별 고사(논술위주전형) 미운영이다.

선행학습 유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전형 요소인 논술위주전형을 전면 미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난 심화 학습이나 사교육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을 배제하고, 공교육 정상화 취지에 부합하도록 전형을 운영하고 있다.

셋째, 교과 지식 위주의 구술고사 배제 및 인성·적성 중심의 면접 운영이다.

본교의 2026학년도 면접 평가는 교과형 구술고사가 아닌 인성, 진로 적성, 사고력 등을 다각도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중부대학교 면접구술출제위원회에서 선정한 문항을 분석한 결과, 주로 고교 생활의 활동 경험과 전공에 대한 관심도, 수학 의지 등을 묻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별도의 선행학습 없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수준으로, 면접 전형을 통한 사교육 유발 가능성을 최소화하였다.

넷째, 수시모집 중심의 선발 기조 유지 및 전형의 공정성 확보이다.

전체 모집 인원의 다수를 수시모집을 통해 선발함으로써, 수험생이 수능 대비 사교육과 교과 내신 사교육을 이중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 (다만, 수시 이월 인원으로 인한 정시 모집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이나, 본교는 정시 선발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음.) 또한, 학생부종합전형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적극적 기회균형 정책의 일환으로만 폐지함으로 전형의 공정성과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있다.

다섯째, 학생부교과전형의 고교 교육과정 연계성 강화이다.

본교의 학생부교과전형은 고교 교육과정의 충실한 이수 여부를 가장 중요한 평가 척도로 삼고 있다. 특히, 석차등급 경쟁 부담을 덜기 위해 성취도 평가로 운영되는 진로선택과목을 전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내신 사교육 유발 요인을 배제하였다. 또한, 수능위주전형 역시 국가가 정한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되는 수능 성적만을 활용하므로 선행학습을 유발하지 않는다.

여섯째, 전형 반영 방법 개선을 통한 실질적인 학습 부담 경감이다.

2026학년도 수시모집 학생부 위주 전형에서는 진로선택과목을 포함한 10개 과목만을 반영하여 학생들의 교과 이수 부담을 덜었다. 아울러, 정시전형에서는 기존 탐구영역 3개 교과(사탐, 과탐, 직탐) 중 1과목을 선택하던 방식에서, 수능 필수과목인 '한국사'를 선택지에 추가(총 4개 교과 중 택 1)하였다. 이를 통해 수험생의 학습 부담과 사교육비 부담을 전년도 대비 더욱 크게 경감한 것으로 평가된다.

2. 2027학년도 입학전형 반영 계획 및 개선 과제 제언

본 연구 결과, 2026학년도 중부대학교 입학전형은 고교생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특이 요인이 없으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공교육정상화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전형에서는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전년도보다 더욱 경감하였다. 수시전형의 경우 학생부 교과성적 반영과목 수를 기존 15개에서 10개로 축소하고 그 반영 범주를 진로 선택과목까지 확대하였다. 정시전형 또한 기존 탐구영역 3개 과목 중 1택 방식에서, 수능 필수 과목이자 절대평가인 한국사를 포함한 4개 과목 중 1택으로 변경하여 수험생의 학습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였다.

향후에도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원천 차단하고 공교육 정상화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현재의 전형 기조를 지속해서 유지 및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중부대학교 입학 전형의 개선 과제와 2027학년도 전형 반영 계획은 다음과 같다.

가. 출제 및 검토 개선 과제

본교의 2026학년도 입학전형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면접 문항의 출제 및 검토 절차가 매우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전형의 공정성과 내실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도출한 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출제위원의 정기적 교체 및 문항 검증 시스템의 고도화이다. 문항의 질적 개선과 보안 강화를 위해 매 학년도 출제위원의 일정 비율을 교체하는 제도를 확립한다. 실제로 본교는 전년도 대비 출제위원 11명 중 8명을 교체하였으며, 향후에도 1년 단위의 교체 주기를 엄격히 유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개 문항은 면접구술출제위원회와 학부 전공 교원 간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 비공개 질의 문항은 전공 교원 출제 후 면접구술출제위원회와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에서 고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 및 대학별고사 수준의 심화 내용 포함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여 원천 배제하는 현행 시스템을 지속해서 강화한다.

둘째, 전공 영역별 최신 사회 발전 동향 및 시의성을 반영한 문항 개발이다. 단편적인 지식 확인을 지양하고, 최근 인공지능(AI) 등 사회적 화두가 되는 핵심 이슈를 각 전공 영역과 연계한 문항을 적극적으로 개발한다. 이를 통해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길러진 지원자의 다각적인 사고력과 전공에 대한 관심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문항의 타당도를 개선한다.

셋째, 현직 고교 교사 위촉 확대를 통한 고교 교육과정 연계성 교차 검증이다. 현재 본교는 교과 지식을 묻는 필답고사나 선다형 고사 등을 전혀 실시하지 않아 외부 교사 위촉에

대한 법적 의무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면접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지를 더욱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현재 참여 중인 현직 고교 교사 검토위원 풀(Pool)을 추가로 확대하거나 정기적으로 교체 위촉하여 검토 과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한층 제고한다.

나. 출제 후 점검 강화

본교의 2026학년도 입학전형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문항 출제 후 점검 과정 역시 관련 규정에 따라 매우 적절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점검 체계의 실효성을 한층 높이고 평가의 공정성을 확고히 담보하기 위해 도출한 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출제 및 검토 위원 자체평가 매뉴얼의 고도화이다. 출제 이후 점검 과정이 더욱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별(출제 위원 및 검토 위원) 자체 평가 기준을 세분화하고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 현장에 적용한다.

둘째, 출제 위원의 정기적 교체를 통한 점검의 객관성 유지이다. 앞서 '출제 및 검토 개선 과제'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매 학년도 출제 위원의 일정 비율을 교체함으로써 익숙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점검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문항 검증의 긴장감을 유지한다.

셋째, 교내외 검토위원의 순환 위촉 시스템 구축이다. 출제 후 점검 과정의 투명성과 외부 시각의 객관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매 학년도 교내 검토위원의 일정 비율을 순환 교체하고 교외 검토위원은 전원 신규 위촉(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 차년도 입학전형 반영 계획

본교의 차년도 입학 전형은 고교학점제 도입 등 교육과정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고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수험생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주요 반영 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반영 교과 영역의 확대 및 반영과목 수의 최적화이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교과 영역의 전 과목을 평가 반영 범주에 포함하되, 수험생의 학습 부담을 덜기 위해 실제 전형에서는 지원자의 이수 과목 중 성적이 우수한 10개 과목만을 선별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단, 체육, 예술, 기술·가정/정보, 제2외국어, 한문, 교양 등의 교과는 전형 반영 대상에서 전면 배제한다.)

둘째,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선택과목 평가 방식의 개편 적용이다. 2028학년도 부터는 기존 교육과정의 진로선택과목이 진로선택(심화, 진로)과 융합선택(융합, 실생활)으로 세분화되고, 특히 융합선택 중 사회/과학 과목이 석차등급 없이 성취도로만 제공되는 등 평가 환경이 크게 변화한다. 본교는 이러한 학업 환경의 변화를 전형에 적극 수용하여 국·영·수·사·과 전 과목으로 반영 범주를 넓힘으로써,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존중하고 내신 성적 확보를 위한 사교육 의존도를 낮춘다.

결론적으로, 본교의 차년도 입학전형은 기존과 동일하게 고교 정규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입전형 대비가 가능하도록 체계적으로 설계되었으며, 이에 따라 본교 입학전형 운영으로 인한 선행학습이나 사교육 유발의 여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2027학년도 중부대학교 입학 전형에서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공교육 정상화 기조를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지속해서 유지 및 개선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입학 전형의 간소화 및 명료화 기조 유지이다. 수험생과 학부모의 대입 준비 부담 및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해 현행 입학 전형의 직관성과 단순성을 지속해서 확보한다.

둘째, 학생부종합전형 미운영 방침의 지속이다. 2023학년도부터 적용해 온 학생부종합전형 폐지 기조를 2026학년도 이후에도 일관되게 유지하여, 복잡한 전형 요소로 인한 사교육 유발 가능성을 배제한다.

셋째, 교과 지식 위주의 평가 배제 및 인성 중심 면접의 내실화이다. 고교 교육 정상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교과형 지필고사나 구술면접은 전면 배제하며, 지원자의 역량과 수학 의지를 확인하는 인성 및 적성 중심의 면접을 시행한다.

넷째, 대학별 고사(논술) 전면 미 실시 및 실기 전형의 최소화이다. 사교육 유발 효과가 큰 논술위주전형은 향후에도 도입하지 않으며, 실기위주전형 또한 실기 역량이 필수적인 모집 단위에 한정하여 최소 수준으로 운영한다.

다섯째, 학교생활기록부 외 추가 증빙자료 요구 일체 금지이다. 모든 전형에서 소논문, 포트폴리오 등 외부 스펙 성격의 추가 서류를 전혀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비교과 활동과 관련한 선행학습 및 사교육 유발 소지를 완벽하게 차단한다.

여섯째, 학생부교과전형의 반영 교과목 수 최적화 방침 유지이다. 본교 전형 중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학생부교과전형에서 평가 반영과목 수를 일부 축소해 현행 방침을 고수하여, 수험생의 학업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과목 선택권을 보장한다.

일곱째, 실기위주전형의 평가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이다. 특수 목적 학과를 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실기위주전형의 경우, 평가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더욱 철저히 강화한다.

다만, 대학 입학전형의 본원적 타당성(적격자 선발)을 제고하기 위해, 모집 단위별 전공 특성에 부합하는 유관 교과목 성적을 맞춤형으로 반영하는 방안은 장기적인 연구 과제로 삼는다. 단, 이러한 전형 설계는 개별 대학의 독자적인 추진만으로는 수험생의 지원 부담을 가중시켜 전형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대입 제도 전반의 발전 방향과 연계하여 정부 및 교육 당국 차원의 거시적인 정책 모색과 지원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부록 1] 2026학년도 중부대학교 수시모집 입학전형 요약

전형유형	전형명	모집인원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실질반영비율, %)			
		정원내	정원외	합계	모집단위	학생부 (교과)	면접	실기
학생부위주 (교과)	학교생활우수자	250	-	250	· 해당 모집단위	70(65.1)	30(34.9)	-
	학교생활우수자 (항공운항서비스)	23	-	23	· 항공운항서비스학전공	50(51)	50(49)	-
	학교생활우수자 (항공서비스)	53	-	53	· 항공서비스학전공	50(51)	50(49)	-
	학생부우수자	921	-	921	· 해당 모집단위	100(100)	-	-
	지역인재 I	74	-	74				
	지역인재 II	3	-	3				
	국가보훈대상자	5	-	5				
	농어촌학생	-	35	35				
	특성화고교졸업자	-	18	18				
	기초/차상위/한부모	-	37	37				
	특수교육대상자	-	3	3				
실기/실적 위주	실기우수자	242	-	242	· 해당 모집단위	30(33.3)	-	70(66.7)
	경기실적	8	-	8	· 스포츠재활복지학전공	학생부(교과)20(13.8)+출결10(17.2) +서류(실적)70(69)		
		8	-	8	· 스포츠건강관리학전공			
합계		1,587	93	1,680				

* 출처 : 2026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부록 2] 2026학년도 중부대학교 정시모집 입학전형 요약

구분	전형명	모집인원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실질반영비율, %)			
		정원내	정원외	합계	전공(학과)	수능	면접	실기
수능위주	수능우수자	41	-	41	• 해당 모집단위	100(100)	-	-
	사범계	2	-	2	• 해당 모집단위	80(88.9)	20(11.1)	-
	농어촌학생	-	수시 이월	수시 이월	• 해당 모집단위	100(100)	-	-
	특성화고교졸업자							
	기초/차상위/한부모							
실기/실적 위주	실기우수자	18	-	18	• 해당 모집단위	30(38.5)	-	70(61.5)
합계		61	수시 이월	61				

* 출처 : 2026학년도 정시 모집요강.

[부록 3] 문항 제출 양식(문항카드)

해당사항 없음

[부록 4] [중부대학교 선행교육(선행학습) 및 사교육 영향 조사] 설문지

[중부대학교 선행교육(선행학습) 및 사교육 영향 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본교의 대입전형이 선행교육 및 사교육에 미친 영향 정도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응답하신 설문내용은 통계처리 및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리며, 신입생 여러분의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3월

중부대학교 입학홍보처

지금부터 설문은 선행학습영향평가에 관련한 설문을 드리겠습니다.

선행학습영향평가란?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는 경우 본교의 대학별 고사가 사교육(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평가를 말합니다.

문항17	타 대학과 비교하여 본교 대입전형 준비를 위해 선행교육을 더 많이 하였습니다습니까?
	매우 그렇다 1 2 3 4 5 매우 그렇지 않다
문항18	타 대학과 비교하여 본교 대입전형이 선행교육 확대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1 2 3 4 5 매우 그렇지 않다
문항19	타 대학과 비교하여 본교 대입전형 준비를 위해 사교육을 더 많이 하였습니다습니까?
	매우 그렇다 1 2 3 4 5 매우 그렇지 않다
문항20	타 대학과 비교하여 본교 대입전형 준비를 위해 사교육이 더 많이

	필요합니까? 매우 그렇다 1 2 3 4 5 매우 그렇지 않다
문항21	본교 전형유형 중에서 선행교육 유발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전형은 어떤 전형입니까? 1 학생부교과 전형 2 실기위주 전형 3 수능위주 전형 4 없다
문항22	본교 전형유형중 사교육 유발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 하는 전형은 어떤 전형입니까? 1 학생부교과 전형 2 실기위주 전형 3 수능위주 전형 4 없다
문항23	본교 전형유형중 선행교육 유발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전형요소는 어떤 것입니까? 1 학생부교과 2 실기 3 면접 4 수능
문항24	본교 전형유형중 사교육 유발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전형요소는 어떤 것입니까? 1 학생부교과 2 실기 3 면접 4 수능
문항25	본교 전형에서의 면접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문항이었습니까? 1 고교 교육과정 내의 질문이라 충분히 답변할 수 있었다. 2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이라 답변할 수 없었다. 3 잘 모르겠다.
문항26	본교 전형에서의 면접문항이 다른 대학과 비교하여 사교육을 더 많이 유발하고 있습니까? 매우 그렇다 1 2 3 4 5 매우 그렇지 않다